

“청소년이 주인공”...영등포구, 28일 ‘영스티벌’ 개최로 소통의 장

영등포구가 오는 3월 28일, 새 학기를 맞은 청소년들의 희망찬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영등포 아트스퀘어와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청소년 축제 ‘영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새로운 환경을 마주한 청소년들이 설렘과 기대를 함께 나누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축제는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관하고, 시·구립 청소년시설과 유관기관이 연

합해 운영한다. 타임스퀘어 광장과 영등포아트스퀘어 두 공간에서 ▲도전해봄 ▲힐링해봄 ▲미래를봄 3가지 테마 구역으로 나누어 다양한 체험 부스를 선보인다.

‘도전해봄’ 부스에서는 타임스퀘어 광장에 마련되며 키캡 키링 만들기, 타로카드 체험, 점자 마스크 만들기, 에코백 꾸미기 등 창작 활동을 운영한다. ‘힐링해봄’에서는 과자집 만들기, 방탈출 게임, 온라인 포레스트 등을 진행하며, ‘미래를봄’에서는 로봇만들기와 확장현실(XR) 스포츠 체험 등 미래 기

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축제의 재미를 더할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샌드아트’ 공연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서프라이즈 과학쇼’가 준비되어 있다. 두 공연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우리구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아동청소년과 또는 각 청소년 시설에 문의하면 된다.

“조선 영웅부터 북튜버까지” 송파책박물관, 교육프로그램 5종 운영

송파구가 송파책박물관에서 3월부터 7월까지 유아와 초등학생,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5종을 운영한다.

구는 박물관 전시와 소장자료를 아이들이 더 쉽고 즐겁게 경험하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추억을 쌓고, 평일에는 학교나 어린이집 단체가 책 문화를 체험하는 다채로운 일정으로 꾸며졌다.

먼저 주말을 맞은 가족들을 위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6~7세 유아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

는 ‘오라차차, 조선의 슈퍼히어로’는 조선의 영웅 홍길동을 주인공으로 한 연극 놀이다. 가족이 함께 몸으로 이야기를 표현하며 상상력을 키우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초등 1~3학년 가족이 참여하는 ‘우리 가족은 그림책 작가’는 가족의 추억을 한 권의 그림책으로 직접 만들 수 있다. 작가의 작업 과정을 체험하며 가족만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내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나 어린이 기관을 위한 단체 맞춤형 교육도 진행한다.구는 박물관을 처음 접하는 6~7세 아이들을 위해 박

물관 역할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안녕? 책박물관’을 운영하며 인기 전시실인 ‘북키움’ 관람을 함께 지원한다.

초등 4~6학년 학급을 대상으로는 ‘신인 등단! 어린이 동화작가 전시회’를 선보인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미니북을 박물관에 실제 전시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날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두근두근, 도전 북튜버!’도 있다. 중·고등학교 학급 단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직업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책과 영상을 결합한 콘텐츠 기획, 제작 과정을 경험하며 다양한 진로와 적성을 탐색해 본다.

동대문구, 중학생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보편적 교육복지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중학생들이 수련회나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등 숙박을 포함한 체험학습에 참여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체험학습 비용 증가로 인한 학부모 부담이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1인당 평균 참가비는 약 49만 9천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월 ‘2026년 동대문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 범위와 예산을 확정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중학교 별 지정

된 1개 학년 학생 전원이다. 구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개 중학교 중 13개교가 참여했으며, 일반학생 1,650명과 취약계층 학생 130명 등 총 1,780명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전체 지원 규모는 약 3억 4천만 원이다.

활동 유형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9개교, 1,150명, 약 2억 2천만 원) ▲수련회(4개교, 630명, 약 1억 2천만 원)로, 다수 학교가 단순 관람을 넘어 학생 주도의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에 지자체 현실 반영한 합리적 제도개선 요청

국유재산 공익목적 ‘무상사용’ 근거 마련...여가공간 확대 및 정부-지자체 간 형평성 제고

장기전세주택 II ‘미리내집’ 지자체 자율권 확대...‘우선공급 비율’ 규제 완화로 저출생 대응



서울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 시민들의 체감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4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개선 건의는 ▲중앙-지방 간 공유재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무상사용 근거 신설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공공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현실화 ▲하천변 고정구조물 설치 제한 완화 등 총 4건이다.

현재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가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한 반면,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 면제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혼인·출산 친화형 주거모델로, 입주 이

후 출산 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최고 경쟁률이 759:1에 달할 정도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리내집은 입주 이후 자녀를 1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우선 매수 자격이 주어지는 등 안정적인 거주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미리내집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를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2024년 7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현재까지 총 2,274호를 공급했으며, 2026년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했다.

이에 서울시는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미리내집을 공급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을 시·도지사가 수습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올해 ‘저출생 극복’과 ‘주

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약 2만 3천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택지비+건축비)의 지원단가가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택지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서울시 평균 택지가격은 1㎡당 약 700만 원으로 전국 평균(약 25만 원)의 28배에 달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단가는 지자체별 택지 가격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행 하천법에서는 하천구역 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해 문화 및 휴식 등 하천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재 이를 반영한 편의시설·쉼터 등 고정구조물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하천법에서는 하천구역 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해 문화 및 휴식 등 하천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재 이를 반영한 편의시설·쉼터 등 고정구조물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기존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지자체의 현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성 기자

고유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전격 시행

4월부터 한달 간 기동행카드 신규 이용자 충전금액 10% 티머니 마일리지페이백

최근 중동 지역 갈등 심화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고유가 대응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동행카드 신규 이용자 충전 요금 10% 티머니 마일리지페이백 ▲대중교통 집중 배차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강화 ▲정부 정책에 맞춘 운영주차장 5부제 시행 ▲대중교통 이용 홍보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교통 수요 관리 방안과 선제적인 수송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고유가 시대, 전 국민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티머니에서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동행카드를 처음 구매하여 ‘30일권’을 충전하고 사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충전 요금의 10%를 티머니 마일리지로 페이백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기동행카드는 전국 최초로 도입된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으로 특히 승용차 이용자들이 매우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고유가 시대에 적합한 교통정책이다.

마일리지 사용내역 확인과 페이백을 위해선 홈페이지 가입과 카드 등록이 필요하다. 해당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금으로 전환하거나 편의점,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도중 환불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중교통 수송력도 확대한다. 출퇴근 시간대 전후 지하철과 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연장하고, 혼잡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자치구 교통수요관리도 강화한다.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한 자치구에는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 참여형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차량 5부제는 향후 정부의 지원안보 위기 단계 격상 시 시민 대상 공영·공공부설 주차장까지 확대 시행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시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성 기자

서울 도시철도, 최첨단 ‘무선통신 신호시스템’ 도입

‘궤도회로 방식’→ ‘무선통신 방식’, 올해 우이신설선 시작으로 9호선·2호선 순차 적용

서울시가 하루 500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 ‘도시철도’ 혼잡도 해소를 위해 최첨단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 Communication-Based Train Control)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혼잡도를 평균 20%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증량·급행·노선 신설 등 단편적 해결 방안이 아닌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도시철도 운행 패러다임을 바꾸는 ‘도시철도 혼잡개선 혁신방안’을 26일(목) 발표했다. 과도한 투자 비용, 시설 개선 어려움 없이 혼잡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발표한 혁신방안은 도시철도 신호시스템을 기존 ‘궤도회로 방식’에서

‘무선통신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국내 대다수 철도노선에서 사용되는 ‘궤도회로 방식’은 선로에 전기 신호를 흘려 열차 위치를 구간 단위로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구간 단위로 파악된 위치는 열차의 안정성을 확보해 가며 배차간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내의 경우 신림선에 한국형 무선통신 방식인 KTCS-M이 적용되어 안정적으로 운행 중이며, 인천 도시철도 1호선도 무선통신 방식으로 개량을 계획 중이다. 또한, 뉴욕, 런던, 파리, 홍콩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도 무선통신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KTCS-M은 국가 R&D사업을 통해 국

산화에 성공한 무선통신방식의 신호시스템으로 2014년도 개발완료되었다.

‘무선통신 방식’ 신호체계는 혼잡도가 160%가 넘는 우이신설선에 우선 적용하고 9호선과 2호선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우이신설선의 경우 ‘34년도에 신호시스템 대체투자가 예정되어 있어 우이신설 연장선 개통 예정인 ‘32년을 계기로 ‘무선통신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투입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6년 상반기, 검토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지상·차상장치를 설치한 후 ‘32년 연장선 개통과 함께 완료할 예정이다.

이정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건강속으로 시민경연

서울시민 곁에

서울특별시의회

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에도 시민들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제334회 임시회 2026. 2. 24. ~ 3. 13. (18일간)

